

“설교 잘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십시오”

본지 주최, 김귀보 목사 강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서 개최

김귀보 목사(큰나무교회)가 지난 9일, 본사 주최로 열린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에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나눴다. 20년간 이민 목회의 현장에서 겪은 치열한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열렸다.

김 목사는 미국에 처음 도착해 방문했던 한 교회를 회상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교회는 세 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집회 후에도 불안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불과 10초 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신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이후 그 교회를 담임해 20년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 교회는 한때 공금 횡령 논란으로 전임 목회자를 떠나보낸 아픈 과거가 있었다. 헌금이 주당 300 달러 밖에 나오지 않던 교회 재정으로 목회자가 집과 차를 샀다는 말도 안되



기독일보에서는 6월 9일-10일(월,화)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를 초청해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는 소문을 믿었던 성도들.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해, 무려 네 번이나 교회 이전을 거치며 지금은 달라스 중심가에 정착했다. 현재는 14만 스퀘어피트의 새로운 교회 건물로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말씀 중심의 훈련이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단단하게 세웠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극한의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민교회를 하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반갑다”라는 한 선배 목사의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절절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 다음, 종종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고 고백한 김

목사는 실제로 자신이 죽었다고 느꼈던 설교 후, 한 반주자가 찾아와 “그 설교가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했던 일화를 나눴다. 그는 “설교자는 설교에 실패했다고 느껴도,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며, “설교자와 성도의 생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예화

나 세상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은 성경을 지루한 책으로 여기고, 오히려 재밌는 이야기로 메시지를 대신하려 한다”며, “이렇스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말했다. 그는 내러티브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로 들었다. “유대인이 가장 듣기 싫은 이름,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나온다. 듣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진리가 마음을 꿰뚫는다. 이게 내러티브 설교의 힘”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교 전달 방식의 오류도 지적했다.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소리 치면 성도는 집중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청중은 오히려 ‘왜 소리를 지르나’ 생각한다. 설교자는 권위자가 아닌, 안내자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도를 이끄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러티브 설교는 단순한 감정 호소나 예화 나열이 아니다. 그는 두 가지 성경 해석 방식을 제시했다.

토마스 맵 기자 → 3면에서 계속

美 남침례회, 동성혼·낙태약·음란물 금지 촉구 결의안 통과

달라스서, SBC 연례 총회 개최

남침례교 협의회는 동성혼, 음란물, 임신 중절약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SBC 연례 회의에서 수천 명의 대표가 성 윤리와 낙태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결의안을 구두 투표로 승인했다.

‘성별,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신의 설계’를 통해 도덕적 명확성을 회복

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 중 하나는 동성혼에 대한 주 정부의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2015년 미국 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확립하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을 인정하고, 성착취



2025 SBC 연례총회. © Baptist Press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부모의 권리를 긍정하고 강화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울 정책을 마련하고, 운동 경기에서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음란물 금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은 의원들에게 “모든 매체에서 음란물 콘텐츠의 제작, 출판, 호스팅 및 배포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궁극적인 노력으로 연령 확인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한 엄격한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셀 기자 → 4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You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건강하게 늘세움계
ALWAYS HEALTHY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광가상객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미래를 여는 첫 걸음, 최첨단 디지털 글로벌 캠퍼스에서!

www.cpu.edu

2025년 가을 입학 설명회

Online 입학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Zoom ID: 829.947.6668

개강일: 2025년 9월 2일

★ 날짜와 시간은 미서부 기준

☛ 석사 | 목회학 박사과정

2025년 6월20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학사과정

2025년 6월27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선교학 | 선교학철학 박사과정

2025년 7월 3일 (금) 오후 4시

☛ 전과정 (선교학박사과정제외)

2025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영어 M.Div. 과정

2025년 7월 18일 (수) 오후 4시

☛ 전과정 (선교학박사과정제외)

2025년 8월 8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100 면제

15605 Carn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926.1023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새로운
이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 ☑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 ☑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

학사과정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과정

목회학,
목회학 전문원목과정,
목회학 전문코칭과정,
선교학, 중국어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English M.Div.

박사과정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 철학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2025년 학위수여식 성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GMU)가 2025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2일 오후 7시에 거행하고 5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졸업예배는 김현완 교무학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교수 및 졸업생들의 입장 후 기도, 찬송, 말씀봉독, 설교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기홍 목사(GMU 이사장)는 “본질에 충실한 사역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그동안 GMU에서 훈련받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졸업 후 본질,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2025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5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기독교일보

학위수여식에서는 안중주 학장과 김현완 학장이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이병구 박사원 학장이 박사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51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25명이 현장에, 26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강순영(DMiss), 최의식(DMiss), 이은옥(PhD in ICS,

인도선교사), 이지영(PhD in ICS, 네팔 국제 대학 학장) 등이 박사 학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11명이 학사학위, 23명이 목회학 석사, 7명이 기독교 교육학 석사, 4명이 기독교 상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요르단, 이스라엘, 캐나다, 캄보디아, 중국, 독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선교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이사장상, 총장상, 총회장상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로는 심재용(MDiv), 안혜정(MACE), 김선화(BATh)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문상철 교수와 김영환 목사(동문회장)가 격려사와 축사를 나눴다.

문 교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

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환 목사(동문회장)는 축사를 통해 사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영적 중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명의 길을 가시다가 지치고 힘들 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졸업생 대표 안혜정 씨는 연설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돌아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은 한기홍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토마스 맹 기자

“AI, 설교자의 살아 있는 도서관” ... ‘AI 설교 세미나’ 성료

AXMISSION, GMU,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 주최

목회자들에게 있어 ‘AI’는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목회를 돕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 6월 6일(금),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에서 ‘AI 에이전트 활용법: 설교연구법, 자녀학습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AXMISSION,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사로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와 이충희 교수(GMU AI융합과정 디렉터)가 나섰다.

AI, ‘설교자의 확장된 뇌’

이충희 교수는 AI를 “설교자의 확장된 뇌”, “살아 있는 도서관”이라며, AI를 활용해 설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옥한흠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 평균 30시간을 투자하셨다. 이제는 그와 같은 깊이 있는 준비를 AI를 통해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

그는 AI를 통한 자료 분석, 주석 비교, 문학적 구조 이해, 설교자별 스타일 전환, 성경 원어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며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성은 확장시킨다. 논문은 얼마나 방대한 논문들을 종합해서 제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수준이 결정한다. 설교를 준비하며 주석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가? 예수님께서 자



6월 6일(금), LA온누리교회(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에서는 ‘AI 에이전트 활용법: 설교연구법, 자녀학습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독교일보

연을 이용하셨다.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 자료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 많은 자료를 사용하면 된다. 최대한 많은 자료, 최대한 고급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기술이다. 설교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최고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를 찾기도 어렵지만 자료를 찾아도 며칠이 걸린다. AI 설교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AI를 통한 설교의 장점을 강조했다.

인스턴트 라면 같은 설교 경계

대신, 이 교수는 AI가 단편적으로 제공해 준 1-2 페이지 짜리 설교문을 그대로 강단에서 성도들에

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스턴트 라면 같은 설교’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또한, 수사학적 차원에서, 다른 설교자들의 스타일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설교문을 찰스 스펔전, 마틴 루터 킹,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의 설교, 옥한흠 목사님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자녀 학습 교육에서의 AI 활용법도 소개되었다.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수와 미분 개념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챗봇, 약사 시험을 대비한 개인 맞춤형 학습 챗봇, 학습자의 응답 경향에 따라 문제를 재구성해주는 시스템 등이 언급됐다. 또한, AI를 활용한 캐리어 준비를 위한 AXNOW와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 플랫폼 dxchurch.org, axmission.org 를 소개했다.

AI와 윤리적 및 창조성 문제

최윤식 박사(미래학자)는 가상의 평가자 특성을 바탕으로 설교 피드백을 받는 ‘엥글 탐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챗봇을 설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이끌었다.

최 박사는 AI를 활용한 설교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창조성, 인사이트의 문제 등에 답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혼돈하는 게 있다. AI는 사람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도서관이다. AI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었다. 셰익스피어 전집, 모든 전자 파일을 다 읽었다. 성경 주석도, 성경도 다 읽었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다 읽었다. 목사님들 서재에 있는 모든 서적을 다 읽은 것이다. AI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설교문을 만드는 것은 목사님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AI와 차별화된 인간의 창조성과 통찰’에 관한 물음에 관련해, “창조성을 논리적 연관성과 서로 다른 것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AI는 추론능력을 지녔고, 이 두가지를 잘 한다. AI가 창조성 조차도 평균적 인간보다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인사이트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인간이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이 달라졌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영감을 얻을 때, 심리학적으로 보고 싶다면, 목회상담하신 분들은 그 인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목회상담을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AI에게 심리학자로 페르소나를 입혀 놓고, 본문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을 첨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주디 한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 제45회 학위수여식 성료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에 인생을 맡기라”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이하 CPU)가 제45회 졸업감사에 배 및 학위수여식을 지난 6월 7일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렸으며, 총 65명의 졸업생이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졸업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박태겸 목사(캐나다 동신교회)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 19~26절 본문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간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신앙 여정도 소개하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때, 길을 개척해야 했다. 주님의



CPU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5명, 목회학 석사 24명, 상담심리학 석사 10명, 선교학 석사 5명, 목회학 박사 2명, 선교학 박사 1명, 선교학 철학박사 9명 등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CPU Youtube

의 지휘를 따라 갔다”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CPU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5명, 목회학 석사 24명, 상담심리학 석사 10명, 선교학 석사 5명, 목회학 박사 2명, 선교학철학박사

9명 등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중 35명은 원격수강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생 대표는 스피치를 통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라며, “삶은 여전히 예측불허하지만, 하나님의 선

한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여러분은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실패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심을 믿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



“선교학적으로 본 위기상황의 여성 리더십- 버진 퀸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로 선교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평순 박새현 우크라이나 선교사). ©CPU Youtube

이를 묵상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신학자의 길”이라 덧붙였다.

졸업식에서는 웨스트힐장로교회, 주님세운교회, 안나장학회에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김인식 목사, 박성규 목사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축도는 선한청지기교회의 송병주 목사가 맡아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토마스 맹 기자

월드미션대학 “사랑으로 사역하라” 졸업을 넘어 세상으로

제34회 학위수여식
학사 32명, 석사 65명,
박사 10명, 총 107명 학위 수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6월 7일(토) 오후 1시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34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최윤정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신신목 부총장의 기도, 광고, 학사보고, 학위수여, 임성

진 총장의 연설, 송소현 학우의 특송, Netz Gomez의 축사, 졸업생 감사, 최다니엘 학우의 헌신의 기도, 교가 제창, 이광길 SOMA총장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진 총장은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은 전 세계, 여러나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공부하고 있다. 인도, 캄보디아, 카자

흐스탄, 캐나다, 한국 등 여러 곳에서 참석해 주셨다. 오늘 졸업식장에는 공부하는 동안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시고, 선교 사역에 열중하다 학업이 오래 걸린 분도 계신다. 특별히 2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위해 후원해 주셔서 아프리카 4명의 학생이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면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날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권면하고 싶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듯, 우리도 발을 씻겨줘야 한다. 사랑 없이 하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은 방법



제34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임성진 총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기독일보

이 아니고 태도, 기술이 아닌 마음이다.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사 32명, 석사 65명(MACP 24명, MAGL 6명, MAM 9명, MAT 13명, MAWS

6AUD, MDiv 7명), 박사 10명(DMin 강유민, 박은곤, 변정민, 안선태, 이광천, 이승수, 한석 7명, DMin-CH 이덕화, 조용민, DMA 오위영), 총 107명이 학위를 받았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설교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에 이어서

첫째는 ‘거울로 보는 방식’.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교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성도는 늘 정죄받는 느낌을 받는다.

둘째는 ‘웬즈로 보는 방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 깊이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때 성도는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된다.

김 목사는 “설교자는 감동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본문이 성도의

마음을 만지게 해야 한다”며,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 성도들은 ‘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반응하게 된다. 말씀은 이미 성도의 삶과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설교 잘하려 하

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라며,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하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말씀 안에서 듣게 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첫날 오전에 한국 해민병원

이성수 소장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해민병원은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 건강 검진을 제공해 왔으며, 기독일보는 이를 알리기에 힘써왔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나는 요나처럼 ‘기니’로 뛰어들었다”

서아프리카 기니. 세계 10대 빈국 중 하나이며,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땅이다. 그곳 한복판에 태극기를 걸고, 특공무술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운 한국인이 있다. 바로 장로교 대신측 파송 선교사인 앙드레 손 선교사다. 그는 지난 25년 가까운 세월을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 말라리아에 12번이나 걸렸고, 도복 한 벌과 성경 한 권으로 시작된 그의 선교는 지금 기니의 선교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복음이 없는 곳,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세네갈에 갔더니 선교사가 80명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없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기니가 없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니로 향했습니다”

2010년, 앙드레 선교사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났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첫날, 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해결해야 했다. 물도, 전기도, 사람도 없던 땅.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가방 속 도복과 성경 한 권. 그리고 “날이 밝으면 도복을 입고 활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영적인 소통을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영적인 경험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양 아래에 섰다. 처음 보는 동양인, 흰 도복을 입은 모습에 마을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어느새 그는 그 마을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손을 잡고, 인사하고. 근데 손에서 땀새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 물이 없으니 손으로 대충 더러운



앙드레 손 선교사. ©기독교일보

물에 닦고 그냥 나에게 온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며 태권도를 가르쳤죠”

특공무술, 경찰학교, 태극기... 그리고 복음

앙드레 손 선교사는 ‘스포츠 전문 선교사’로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음악까지 다양한 무술과 예술을 도구로 복음을 전한다. 특별히 그가 가르친 대상은 놀랍게도 현지 경찰 특공대였다.

“기니엔 한국 대사관도 없고, 완전 변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한 경찰이 ‘우리 동생이 태권도 배우는데 너무 좋아한다’며 저를 경찰 부대로 초청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기 시작한 부대는 바로 국가 주요시설을 지키는 기니의 ‘1번 특공부대’. 이후 경찰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특공무술이 채택되었고, 전국 29개 특공부대를 차례로 순회하며 훈련을 맡게 되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뛰어내리겠다’며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찰 부대에 가면 전 부대원이 줄을 서서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태극기를 걸었죠.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앙드레 선교사는 단지 체육 교육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핵심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6~7년의 인내 끝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또 하나의 교회도 세워졌다.

“교회는 복음의 구심점이에요. 영적 도장입니다. 교회 없이 선교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어야 예배가 있고, 훈련이 있고, 거기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곳에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공대들이 정신차리고 훈련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살짝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바이블이라고 말이죠. 현지 언어 노래를 배워 부르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니 현지에선 장로교 교회가 전무했다. 그는 최초로 기니에 장로교회를 세운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특공대 정신’으로 버티고 견뎠다.

학교와 복음, 전략적 선교

“도장을 먼저 짓고, 학교를 세우자 했어요. 교회 허가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통해 들어간 거죠.”

기니 정부로부터 학교 허가를 먼저 받고 이어 교회 설립까지 허가를 받았다. 영어, 수학,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함께했다. 처음부터 ‘이곳은 크리스천 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술을 배운 경찰들의 도움으로 선교 역사가 이곳에 크게 일어났다고 고백한다.

그는 선교지에서 많은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 말라리아에만 12번

걸렸다. 눈과 어깨, 발은 운동과 격파, 훈련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미국에 잠시 들어온 것도 그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였다.

지금도 이어지는 선교

현재 그는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기니 선교 후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미주 대신 세계선교총회 강사로 섬겼다.

그는 지금도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기니에 매달 지원 받은 금액 300~400불씩을 보내고 있다. 말라리아에 걸린 친구들에게 한 사람당 20불이면 나올수 있는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앙드레 손 선교사의 발걸음은 태권도 발차기보다 강했고, 그의 무기는 검이나 총이 아닌 성경과 도복 한 벌이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기니 땅에 두 개의 교회와 하나의 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는 요나같은 심정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선교사로서 ABCD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도록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토마스 맹 기자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전문 선교사인 앙드레 손 선교사는 기니 29개 특공부대를 순회하며 경찰을 훈련했다. ©기독교일보

→ 1면 기사 〈美 남침례회, 동성혼, 음란물, 낙태약 금지...〉에 이어서 결의안은 온라인에서 합의하지 않은 음란물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

리는 ‘Take It Down Act’를 통과시킨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세 번째 결의안에서는 임신 중절 산업에 의한 여성 착취를 비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미국 의회와 주 의회에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제조, 판매, 유통 및 우편 발송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피해에 연루된 제약회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고 각 주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1월에 아이다호 주의

원들은 대법원의 판결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시간,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몇몇 주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지지를 얻고 있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밴쿠버헤브론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밴쿠버헤브론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품는 미라클 센터로 성장하는 교회로 캐나다 BC주의 Langley에 소재하는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1대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반석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귀한 영혼 구원의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새로운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KAPC 교단 소속 목회자 또는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과 신학대학원(M.Div.)졸업하신 분
- ▶전임사역자 이상 목회경력 5년 이상인분(만40세 이상 - 만 55세 미만)
- ▶캐나다 영주권 또는 동등 이상으로 캐나다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한국어 및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국문 및 영문 이력서(학력, 경력 및 가족관계 포함 및 가족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신앙고백과 목회경험, 성장배경, 자신의 목회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목회자 포함)
- ▶목회자 2인의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포함, 추천서는 추천인이 본 교회 청빙위원회로 직접 발송)
- ▶졸업(학위) 증명서(학사 및 석사)
- ▶본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 ▶최근 국문 및 영문 설교영상 2부 및 설교문 2부(Youtube링크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Format으로 제출

접수방법

- ▶이메일: hebronchurch2026@gmail.com
- ▶주 소: 6656 Glover Road, Langley, BC V2Y 0W9
- ▶문 의: 청빙위원장 서해철 장로, 총무 전문성 장로 (이메일 문의만 가능함)

제출마감

- ▶서류접수 마감일: 2025년 7월 12일 자정까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검토 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밴쿠버 헤브론교회 청빙 위원회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을 잡은 순간
어릴 적 그때로
바람이 데려가네요.

넘어질까 두려워
굳게 쥐던 아버지 손
그 온기만은 세월을 넘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센터메디컬그룹이
늘 아버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연락 888-847-3098

센터메디컬그룹TV



진화론, 창조론 공격하며 복음의 터 무너뜨려

'제5차 인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열려

‘제5차 인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9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송월교회(담임 박삼열 목사)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 합신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강의는 노휘성 대표(전 과학교사, 예스티징연구소 소장)는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제와 대안’, 육진경 대표(전 국교사회복연합 대표)는 ‘교과서에 나타난 성혁명 교육에 대한 분석과 대안’,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문화막시즘과 성혁명 역사’라는 주제로 각각 전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노휘성 대표는 “왜 성경이 창조를 가르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창세기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복음을 사수하려면 창세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노 대표는 “2009 개정교육과정 고1과학(금성)에는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서술했다. 이는 가설로 논란이 분분한 빅뱅이



주요 관계자들과 강연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론이 마치 역사적 기정사실인 것처럼 서술돼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세대들의 비판적 사고는 삭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과학교과서는 진화론을 통해 우리 존재의 탄생이 물질의 충돌과 반응의 결과에 불과한 곧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시켜 교육하고 있다”며 “2015 개정교육과정 과학1(천재)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한다’고 명시했다. 논리적으로 맞지만 진화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과서는 진화론적 관

점에 입각하면서 다음세대들이 진화론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세뇌하고 있다”며 “철저한 무신론자인 과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 역사 138억 년 가운데 인류는 고작 약 20만 년만 살았으며 인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소중하지 않는 존재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2015 개정교육과정 고1(천재)에서 인간에 대해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라고 서술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들은 빅뱅, 진화론 등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길들여지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끔 교육받는다”고 했다. 그는 “유물론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감각 경험을 통해 경험되는 것만 진리라며 주장한 자연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험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고, 이러한 세계관이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 발전됐다. 그는 감각 경험과 이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हे겔은 신과 종교는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로 관념에 존재하는 완전한 인식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칸트와 헤겔을 통해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절대자 하나님은 제거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상상과 신화로 구성된 문서로 격하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자연주의적 개념은 물질세계에서만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기에, 여기에서 물질세계만 다루는 진화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진화론적 관점이 사고의 틀이 된다면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다 ▲죽음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인류 역사는 계획과 목적 없이 진화한다 ▲인류가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결국 진화론으로 첫 아담의 범죄가 삭제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진화론의 후예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다. 엥겔스는 ‘다윈이 생물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다’며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한 뿌리라고 서술했다. 또한 히틀러의 나치즘은 진화론에 기초한다. 그는 『나의 투쟁』에서 우생학에 근거한 대학살이 향후 인류의 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서술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유발하라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라며 “창조론을 사수하지 않다면 동성애와의 전투는 오히려 유물론적 사고관을 강화할 따름”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수영로교회, 50주년 맞아 작은 교회에서 ‘흠어지는 예배’ 드려



수영로교회 전경 모습©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가 8일 ‘흠어지는 예배’를 드렸다. 이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수영로교회 본당이 아닌, 전국의 농어촌·미자립·고향교회 등 작은 교회로 흠어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교회 측은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이후 온 열방

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50주년을 맞았다”며 “이것이 수영로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 교회와의 연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안에서 밖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어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흠어지는 예배’에 대해 이규현 목사는 “‘흠어지는 교회’는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원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결국은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면 안디옥교회는 흠어지는 교회였다”며 “수영로교회는 50년 전 개척한 후 출발할 때가 선교적 교회였다. 이 선교회는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흠어지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사적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했다.

이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우리끼리 모여서 큰 예배당에서 굉장히 멋있게 기념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겠지만, 오히려 힘을 빼고 우리 이웃과 세계,

또 이웃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50주년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흠어지는 것인데 한 번 흠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교회가 흠어지는 자로서 선교사적 의미,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를 이제는 이웃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은혜가 흘러가 한국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약한 이웃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성도분들께서 직접 고향 교회, 이웃 교회, 미자립 교회, 농촌 교회, 선교지 등 곳곳으로 흠어져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과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후에 돌아오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이번 한 번의 행사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또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시작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여러분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상징적인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일이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며, 많은 교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트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보트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트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스 총회, 1,000 명 이상 운집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개막

2025년 6월 9일,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정기총회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뉴송교회(현지용 목사)에서 성대히 개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등록인원 1,014 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북미 한인교계 최대 규모의 총회로 자리매김했다. 미주 전역에서 모인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회 첫날 저녁 집회에서는 뉴송교회 담임 현지용 목사가 히브리서 10장 23~24절을 본문으로 '굳게 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현 목사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권면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기



달라스 뉴송교회서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열렸다.

도와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총회에서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시도도 이뤄졌다. 처음으로 마련된 '은퇴목회자 모임'에 은퇴한 목회자 부부들이 참석해 특별한 감동을 자아냈다. 총회 관계자는 "평생을 목회 사역에 헌신하

신 선배 목회자들을 위해 이번 모임을 준비했다"며 "은퇴하신 목회 선배들의 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퇴목회자들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만나 사역의 추억을 나누고 후배 목회

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총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다.

행정 운영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총회 실행위원장 안광문 목사는 "사전 온라인 등록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등록 역시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이 등록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오직 말씀과 교제, 사역 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인교회 정기총회는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미주 한인 침례교회 전체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총회 기간 동안 신학 세미나, 선교 포럼, 차세대 리더십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 지역 선교 전략 발표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총회를 준비한 뉴송교회와 텍사스 북부지방회(달라스 지역) 교회들은 수개월 전부터 봉사팀을 조직하고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봉사자들이 안내와 지원을 맡아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참가자들은 "체계적인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창한 기자

포르노는 인간성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독의 관문이다

아동 성범죄 증가, 인간관계 파괴, 뇌 손상까지... 포르노 중독은 개인과 국가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 집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한 젊은이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 모퉁이에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노라... 밤중, 어둠 가운데에... 보라, 한 여인이 그를 마주하였노라" (잠언 7:6~10).

컴패스케어 임신 서비스(CompassCare Pregnancy Services)의 CEO이자 의료윤리학자인 짐 하든 목사(Rev. Jim Harden)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포르노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전문이다. 오늘날의 남성은 더 이상 거리 모퉁이를 배회하지 않는다. 대신 인터넷을 탐색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거리 모퉁이'는 바로 포르노 사이트다.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 전염병

포르노는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 바이러스다. 미국인의 91%가 스마트폰을 소지한 오늘날, 이 바이

러스는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퍼지며 사회의 문명성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경의 경고처럼, "그녀는 모든 거리 모퉁이에 숨어 있다"(잠언 7:12)는 말은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도 적용된다.

인터넷은 생산성과 정보 전달,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경이로운 도구이지만, 일부 포르노 유포자들은 이를 도덕적 폐수의 배출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유 표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며, 결국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집단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도덕 붕괴가 초래할 국가적 재앙

포르노 중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의 양심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는 많고, 그녀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잠언 7:26~27)이라고 경고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

통령 또한 "자유 제도는 시민의 인격에 기초하며, 악을 숭배하는 사회는 자유를 누릴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교회 강단이나 신문, 라디오, TV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이 수십억 인구가 참여하는 공적 담론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담론의 힘을 전 기업들은 그 힘을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

◆관계 파괴와 사회적 폭력의 연결고리

포르노 산업은 미국 사회의 도덕적 산소를 빨아들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성경은 성적 집착이 파멸로 이어진다고 거듭 경고한다.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경고한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잠언 5:5),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잠언 5:8), "어찌하여 간음녀로 인해 도취되려 하느냐"(잠언 5:20).

그리고 그는 해답을 제시한다. "너의 젊은 아내와 즐거워하라... 그녀의 사랑에 항상 도취되리라"(잠언 5:18~19). 건강한 성은 남녀 간의 상호적이고 독점적인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혼과 가정을 대신한 포르노는 일탈과 범죄를 부추긴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수사기관은 포르노 소비와 아동 성범죄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달 850명의 남성이 온라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있으며, 성인의 약 2%가 아동에게 성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동들이 4세에서 5세부터 포르노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아동 성학대이며, 아동 간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의 25%가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늘고 있으며, 포르노 접근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신경과학 연구는 포르노가 성인의 뇌 구조까지 변화시켜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행동을 정상화시키며, 이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의 온상

미국 내 실종된 이민자 아동은 30만 명이 넘고, 이들 상당수가 성노예로 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97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포르노 산업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삼아 그 수치스러운 실체를 가리고 있다. 포르노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와 인신매매의 관문이자 중독성 있는 약물과도 같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양산되고, 피해자는 상품화된다.

◆해법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는 상식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DA) 제230조가 포르노 등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맹점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발의안인 '주간 음란물 정의법'은 포르노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은혜 기자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인정받음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예수 찬양 전, 공산당 송가부터”
中 교회에 퍼지는 공산주의 강요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중국 내 국영 삼자교회 소속 교회들이 주일예배에서 마지막 송영을 부르기 전, 중국 공산당 찬가를 부르는 것이 사실상의무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 이 아닌 공산당으로 옮기려는 의도 된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와 동역 기관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2025 교회 음악 사역 청사진’이 이러한 정책의 핵심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청사진은 ‘중국적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찬송가 개발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찬양곡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신에 맞게 ‘개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베이징에서는 삼자애국 운동과 중국기독교협회 주도로 주요 교회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이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교회들이 전용 앱을 통해 승인된 찬양곡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공산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예배 음악은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심각한 점은 이 계획이 단순한 음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예배의 영적 흐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나에이드 대표 밥 푸(Bob Fu)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일어나 공산당 찬가를 부르고 공산주의 영웅들을 찬미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명백한 박해”라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청사진을 바탕으로 각 교회에 음악팀을 공식적으로 조직하도록 했으며, ‘중국화된’ 찬양곡으로 구성된 음악 콘서트를 열 것을 지시한 상태다. 그간 중국 정부는 예배당에 설치한 CCTV와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성도들의

의 출석을 감시하고, 인터넷에서 기독교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이번 조치는 그 통제를 음악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국 정부는 예배와 신학교, 설교, 심지어 교회 건물의 구조까지 통제해 왔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찬송가를 통해 참된 신학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그 마지막 통로마저 차단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폴리 대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중국 정부는 ‘찬미의 노래’(Praise Hymn Net), ‘아가’(Song of Songs) 같은 기독교 음악 앱의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가 허용한 앱을 통한 콘텐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존 찬양을 통한 신학 교육의 기회를 막고, 공산당 이념을 예배에 이식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남아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인터넷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이야말로 중국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인 찬송가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강조한다.

“순교자의 소리는 매일 30분씩 구성된 라디오 프로그램 두 개를 중국 전역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 낭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검열을 피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향후 이 라디오 방송에 전통 찬송가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우리는 수백 년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불러온 찬송가를 중국 교회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英 의사 1천여 명, 조력 자살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김 리드비터가 제안한 법안이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환자와 의료 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최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리는 ‘말기 환자를 위한 법안’(Terminally Ill Adults Bill)에 대한 3차 독회를 앞두고 나왔다.

지난 11월 1차 독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6개월 이하의 수명을 선고받은 말기 질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서한에서 의사들에 의한 기대 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비롯해 제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한은 “이 법안은 의회가 장애인을 포함해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사와 취약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의사들은 “이 법안은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고, 안전장치가 부족하며, 우리 모두의 견해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명자 중에는 유전학자 존 번 경과 자격을 갖춘 의사이자 완화 의학 컨설턴트인 핀레이 남작부인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 법안이 영국의 임종 치료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로도 조력 자살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의사들은 또한 의료 전문가들이 강압을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취약한 환자들은 강압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특히 여성, 가정 폭력 피해자, 노인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합법취직을 해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인터넷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요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위한 기도회

OMC 중동본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2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1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1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lc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매(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중보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FC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r.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PCUSA, 이번엔 성직 후보자에 ‘동성애 견해 요구’ 논란



PCUSA 총회. ©페이스북

십수 년 전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 임명을 허용한 미국장로교(PCUSA)가 최근 성직자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를 문도록 요구하는 규례서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개정안이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4-C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후보자들에게 성적지향과 성적체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문도록 규정하기 위해 규례서 G-2.0104b를 개정한 것으로, 지난해 열린 제226차 PCUSA 총회에서 297대 130으로 통과됐다. 이후 지난 5월 노회(지역 기구)의 과반수를 확보해 오는 7월 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지지한 PCUSA 소속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많은 이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서한 작성자 중 한 명인 조지 아주 애틀랜타제일장로교회 토니 선더마이어(Tony Sundermeie) 목사와 그의 아내 케이티 선더마이어(Katie Sundermeier) 목사는 “새로 승인된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성소수자 개인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핵심적인 확언은 이미 개정안 24-A를 통해 확보됐으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정의와 목적, 명확성을 모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24-C는 후보자의 신학적·종교적, 그리고 관계적 성향이 성적 지향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연관되는 방식에 대한 평가적 탐구를 도입한다. 이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부는 동성결혼식을 주례했고, 성소수자들의 성직 안수를 지지했지만, 포용이 은혜로운 환영이 아닌 강요된 정통 교리가 될 때 그 포용은 도덕적·영적인 힘을 잃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포용이 아닌 통제와 배제의 문제다. 최종안은 안수 기관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신학적 신념을 근거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 24-C의 구조와 어조는 일부 신학적 신념, 특히 진보적인 성과 성별 규범에 반대하는 신념은 이제 성직 안수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정책이 되고, 정책이 어떻게 예외가 될 수 있는 지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레이크스 장로교회의 페르디 브리츠(Ferdi Brits)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승인된 개정안은 내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배제”라고 했다. 그는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토론장에서 교회가 포용성에 대한 기존 결정을 시행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명백히 언급됐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하블룩에 있는 트리니티장로교회의 라베라 M. 파라토(LaVera M. Parato) 목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슬프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통과되는 데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행이다. 우리 노회는 확실히 좌파 성향인데, 겨우 9표 차이로 통과됐다는 사실에 슬프면서도 기뻐했다”고 했다. 파라토 목사는 “개정안의 문구가 모호하고, 권위 있는 해석이나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차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PCUSA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교인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PCUSA 통계에 따르면, 교인 수는 2000년 250만 명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104만 5천 명으로 감소했다. 교단 자체도 올해 말까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쇠퇴의 원인 중 하나는 PCUSA의 진보적 신학적 방향이다. 예를 들어 PCUSA가 2010년 동성애자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을 때, 수백 개의 교회가 이에 항의하며 교단을 탈퇴한 바 있다.

선더마이어 목사는 새로 승인된 개정안으로 인해 더 많은 교인과 회원교회가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부 개인과 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꼭 그들이 성소수자 포용을 거부해서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지지해 왔다. 오히려 PCUSA가 더 이상 신학적 다양성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보호하는 곳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PCUSA 내의 성경적 보수주의의 교회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야 할 때, 감독 노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항의 서한에 서명한 목회자 중 한 명 이상은 이미 해당 교단과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오리건주 허미스턴에 있는 페이스장로교회의 브루스 섹스턴(Bruce Sexton) 목사는 1월에 자신의 교구에 보낸 편지 사본을 CP에 제공했는데, 그 편지에는 자신이 1991년부터 목사로 섬겨온 교단을 떠나겠다는 결정이 요약돼 있었다. 오랫동안 교단의 자유주의적 방향에 우려를 표해 온 섹스턴 목사는 지난해 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된 것을 (탈퇴를 결심한) 결정적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난 성경적 기준을 따르는 사람인데, PCUSA는 내가 결혼 언약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날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PCUSA 내부가 병들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교단으로서 그들은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인 유산에서 돌아섰다. 결국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사도행전 5:29)’”고 했다. 섹스턴 목사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며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ECO(복음주의장로교연합교단)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의 교회는 교단 탈퇴를 신청하기 위한 분별 절차를 고려 중이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개정안을 놓고 PCUSA를 떠날 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지만, 토니와 케이티 선더마이어 목사 부부는 잔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24-C 수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PCUSA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PCUSA의 쇠신에 동참하고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PCUSA를 떠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단이 여전히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믿는 상호 관용이라는 이념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캘리포니아 해변서 2만 6천여명 동시 침례... 사상 최대 규모



©CBN뉴스 보도화면 캡처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오순절 주일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이 ‘미국에 세례를’(Baptize America) 캠페인에는 50개 주에서 650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했으며, 무려 26,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침례를 받았다. 주최측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동시 침례’ 행사”라고 밝혔다.

행사의 주최자 중 한 명인 마크 프랜시(Mark Francey) 목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물세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캘리포니아에 세례를’(Baptize California) 캠페인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해마다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처음에는 4천여 명에 불과했던 세례자 수는 지난해 6천 명을 넘었고, 올해는 전국 규모로 확대됐으며, 깊은 영적 뿌리를 지닌 해변인 파이러츠 코브에서 대규모 모임으로 마무리됐다.

이곳은 2023년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에서 묘사된 것처럼, 1970년대 ‘예수 운동’ 당시 척 스미스(Chuck Smith) 목사가 대규모 침례를 집전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이번 행사의 상징적 의

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단순한 기념비나 이정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그날의 침례를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한 참가자인 가브리엘(Gabriel)은 “저는 중동에서 저지른 활동으로 죽거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례를 받은 순간의 깊은 감격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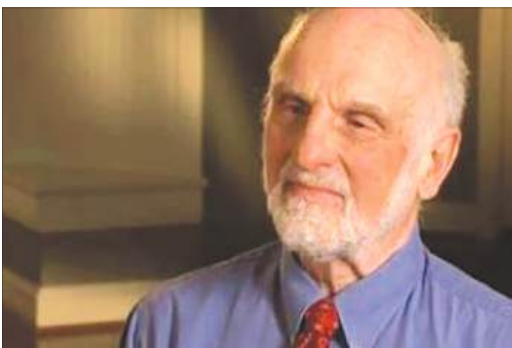
형과 함께 침례를 받은 호르헤 곤잘레스(Jorge Gonzalez)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셨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기회였고,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날의 감동적 분위기 속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캠페인을 섬긴 자원봉사자 알리사 서클(Alyssa Circle)은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마크 프랜시 목사는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美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92세로 사망



월터 브루그만.

현대의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 중 한 명이자 미국 신학계의 예언적 목소리였던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그는 6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시간주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60년이 넘는 뛰어난 경력 동안 브루그만은 1백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글을 저술해 왔다.

그의 신학적 유산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78년 출판된 그의 획기적인 저서, ‘예언적 상상력’(The Prophetic Imagination)은 1백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신학교에서 널리 가르치고 있다.

브루그만은 조지아주 디케이터에 있는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구약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2003년 은퇴할 때까지 가르쳤다. 다작의 저술가이자 교사, 그리고 설교자로서, 그의 학문은 히브리어 성서, 특히 예언서 본문에 집중되었다. 그의 연구는 성경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도전했고,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것을 강조했다.

윌리엄 마르셀러스 맥피터스 구약학 교수인 윌리엄 P. 브라운 박사는 “성서 학문의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 브루그만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다작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성경 연구를 독보적으로 재정의했다. 수많은 학생과 목회자들이 브루그만의 가르침과 저술을 통해 변화되었다.

브루그만은 연합 그리스도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직을 맡은 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설교자이자 강사로서 높은 수요를 누렸으며,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사회, 정치, 경제 현실을 거침없이 다루는 설교로 유명했다.

그는 소비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종종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는 당파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예언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33년 네브래스카주 틸덴에서 태어난 브루그만은 미주리주 블랙번에서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북미 독일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였다. 십대 시절, 그는 형과 함께 지역 흑인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경험은 평생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엘름허스트 대학, 에덴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덴 신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1986년 컬럼비아 신학교로 옮겨 남은 학업 생활을 그곳에서 보냈다.

브루그만은 은퇴 후에도 기독교 사상에 있어 다작의 목소리를 내며 말년에도 에세이, 성찰, 강연을 꾸준히 했다.

그는 목회자들과 학생들을 멘토링했고, 미국 UMC(United Church of Christ)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유족은 아내와 아들 2명이 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도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아기도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미주 한인 위한 의료 섬김...
헤민병원 이성수 소장에 감사패

지난 9년 동안 해외 한인과 목회자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검진 사역을 담당해 온 헤민병원 이성수 소장에게 기독교일보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40년 전통을 가진 대형 종합 병원인 서울 헤민병원은 미주 한인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 종합 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80만원 가량의 건강 검진 비용을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 미주 한인 동포들이 한국 방문 시 450 달러에 종합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성수 소장은 “병원을 설립한 이사장님은 크리스천이고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고, 이민오신 목회자·성도·과송된 선교사 분들을 섬기고자 이러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헤민병원을 통해 건강 검진을 받으신 수많은 동포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크게 만족해 하셨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어린이 대공원 인근에 위치한 헤민병원은 4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종합 병원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와 유수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 리모델링을 위해 120억 원을 투자해 시설도 업그레이드 했다.

종합 건강 검진은 특수 초음파, 갑상선 검사, 골밀도 검사, 위내시경 검사와 같은 필수 검사와 뇌졸중, 안과, 심전도, 폐 기능, 방사선, 위암, 부인과, 혈액, 간 기능, 혈청, 심장 질환, 당뇨, 심혈관, 관절 등 20여 진료 항목을 통해 100여 가지 질환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특별히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한 뇌, 폐 검사는 저선량 CT를 사용해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했다.

미주 한인들이 헤민병원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213-341-5123로 문의해 100달러를 예치금으로 내고, 350불은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면 된다. 100달러 예치금을 통해 받은 건강검진 예약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본인이 사용하지 못할 시 가족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다. 검진은 5시간 정도 걸리며 방문 두 달 전에 예약해야 한다.

건강검진 문의: 213-341-5123
헤민병원 예약실 82 2 456 5201
주디 한 기자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을 위한 종합 검진 혜택을 제공해온 헤민병원 종합검진 센터 이성수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독교일보

센터메디컬, ‘우울증과 정신 건강’ 세미나

시니어 전문 센터메디컬그룹이 오렌지카운티 수정아파트에서 ‘우울증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건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메디컬클리닉 고제득 전문의가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시니어들의 높은 관심과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증에 관한 설명과 극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어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했다. 고 전문의는 UC Irvine과 Saint Louis University에서 M.D.와 Ph.D. 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는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유일한 정신과 전문의로, 한인 시니어 맞춤형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울증에 대한 길



센터메디컬클리닉 세미나. ©기독교일보

이 있는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이 길게 이어져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되었다”는 반응도 다수였다.

세미나 장소인 수정아파트는 가든그로브 시니어 순환버스 노선 중 한 곳으로, 교통 편의를 높여 더 많은 시니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지역 사회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월·화·금: 가든그로브점 (714) 583-8569
수요일: 플러튼점 (714) 519-3024
목요일: 로렌하이츠점 (626) 363-4661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말씀이 들리는 복



김한요 목사
베델한국교회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디오로 백번 듣는 것보다 TV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화상

전화를 합니다. 셀폰도 전화라기 보다는 눈으로 보는 컴퓨터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도 이제는 영상뉴스로 대신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에 지친 현대인은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요즘 일부러 셀폰을 두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복잡한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들어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소위 TMI(too much information)로 폭탄을 맞은 듯한 총혈된 상황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숲이 우거진 산 속에서 쉬고 싶을 때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성경은 ‘들으라’ 말씀

합니다. 믿음을 갖는 방법도 어쩌면 ‘보라’가 아니라, ‘들으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론 눈을 감고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22) 의외로 성경은 먼저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들은 복되도다”(요 20:29)입니다. 요즘 말씀이 들리시나요? 혹시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시야를 혼잡하게 하는 TMI로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일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시간에 관심이 없으면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라”(고후 5:7)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8)

눈을 감읍시다. 귀를 쫓긋 여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기도의 눈을 감으면,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뇌치유상담

사회적 뇌, 사회적 연접으로 신경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신경과학의 발달로 인해 1970년대를 지나면서 뇌가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신경세포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이 없다면 상호 관계가 없으면 신경세포는 죽게 된다.

태어나서 상호 의존이 없으면 세포자멸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은 의존성 우울증을 겪게 된다. 뇌는 사회적 연접을 통해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발달되어 가는 것이다. 시각을 통해 사회적 연접을 이루고 얼굴 표정을 통해 사회적 정보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사회적 경험은 수십 년 이후의 성인으로서 신경 생물학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뇌의 형성은 신경세포 간의 상호 자극에 의해 기초를 이룬다. 신경세포가 보통 1초에 40번 혹은 50번 신호를 발사하여 신경 세포 자극이 일어난다. 아주 강한 자극의 경우에는 1초에 500번 정도 신호를 발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가 순식간에 공처럼 뭉쳐진 정보꾸러미 형태로 도착한다.

사회적 뇌의 형성에 있어 뇌의 여러 구조물과 체계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안와내측 전전두피질은 행동 조절과 정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서로의 얼굴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시선 접촉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정보가 우리의 감정과 연관시켜 애착 도식을 형성한다. 또한 안와내측 전전두피질은 감정적 반응을 중재하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분지의 활성화를 조절하고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준다.

사회적 뇌는 사회적 연접으로 신경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감각 기관, 즉 피부 접촉이나 냄새, 시각 및 소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며 생존하는 것이다.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 때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져서 뇌 속에서 전기 화학적 자극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호는 새로운 행동을 자극하며 새로운 행동은 사회적 연접으로 다시 메시지를 되돌려 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연접을 통해 신경 활성화가 일어나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된다.

사회적 뇌는 감정적 조율을 통해 형성된다. 엄마와 신생아 간의 감정적인 조율은 신경망을 형성하게 하고 통합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아이의 자기조절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의 감정적 조율은 아이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껴안아 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후부터 2년 동안 사회적 뇌의 형성은 부모와 아이의 오른쪽 대뇌 반구 사이의 조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뇌의 오른쪽 대뇌 반구에 편향된 회로는 태어날 때부터 작동되며, 생후 첫 2년 동안이 민감한 시기이다.

사회적 뇌의 형성은 모성적 관심과 양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의 모성적 관심과 양육은 사회적 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대인관계가 무섭고 학대적

일 때 사회적 뇌나 감정적 회로의 형성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모성적 관심 행동이 낮을 때 아이는 더 두려워하고 더 부정적이며 우측에 치우친 전두엽 활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각성과 연관되어 있다. 또 모성과 접촉이 차단된 아이의 뇌에서는 세로토닌의 수용체가 감소된다.

모성적 관심과 어린 시절의 모성박탈이 HPA 축의 활성화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성적 행동은 부정적 상황을 만들어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증가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나중에 신체적 병리와 감정적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상승하게 된다.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는 뇌신경 건강 감소성에 관여하는 신경영양인자 수준이 떨어졌으며, 이런 결과는 어린 시절에 학대가 있었던 환경에서 자란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자살에 민감하도록 만든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프로그래밍화 되어, 성장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감정이나 인지, 행동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엄마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면 건강하고, 병의 회복도 빠르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뇌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빨리 배우고, 기억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더 적게 반응하기 때문에 각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나 어려운 상태에서도 학습 능력이 더 양호하다. 이들은 코르티솔의 손상 효과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받은 여성이 긍정적 모습을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모성 분리(박탈)는 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엄마와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경우(분리의 경험)나 엄마의 우울증으로 모성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 즉 모성 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경 성장과 뇌의 가소성에 영향을 받는데, 신경세포와 아교세포가 많이 사망하고 배 측 해마에서 아교세포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모성 분리는 HPA 활성화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색반접에 있는 GABA 수용체가 감소하고 불안 두려움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증가한다. 그리고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며 탐색 활동의 감소, 새로운 것에 대한 회피가 증가한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고 약한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더 많은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놀람반응과 놀람에 의해 유발된 소리가 증가한다.

모성적 관심은 후생적 유전자를 발현한다. 특히 모성행동의 양에 따라 9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었으며 후생적 발현에 대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흥미롭게도 40세 이후에 출산한 여성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거의 4배 정도 더 높다. 이것은 대개 출산과 관련된 호르몬의 보호적 성향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수명 연장은 부분적으로는 양육에 연관된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후생적 과정과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뇌와 신체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의 관심이 아이에게 후생적 요소를 촉발시키는데, 아이를 돌보는 것도 역시 양육자의 유전자를 발현시켜 변화를 준다. 어린 시절의 양육은 사회적 뇌와 감정적 뇌의 회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인관계가 무섭고 학대받을 때 뇌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한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크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교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26)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절기기도 오후 9: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2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1:00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osgc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아) / 금요일 오후 8:00 (영아)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한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강준민 칼럼

숲이 번성하는 것은 어머니 나무 때문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숲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는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연한 기회에 숲에 대해 배웠습니다. 숲 속에 담긴 비밀을 배웠습니다. 숲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숲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은 많은 나무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숲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함께 합니다. 땅 속에 감춰진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숲을 살리고 키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림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는 숲을 키우고 살리는 나무를 “어머니 나무”(Mother Tree)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일평생 숲을 연구하고, 나무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녀는 숲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심을 이루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나무가 “어머니 나무”입니다.

저자는 “어머니 나무는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다. 어머니 나무는 다른 나무들, 특히 어린 나무들과 연약한 나무들에게 메시지와 자원을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숲과 같습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숲에 어머니 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머니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무 같은 분들입니다. 어머니 나무의 역할을 통해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는 소중한 지혜를 배웁니다.

첫째, 어머니 나무는 뿌리를 돌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의 건강이 나무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머니 나무는 광합성으로 얻은 양분, 물, 미량 원소를 균사체를 통해 주변 나무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광합성이란

무엇일까요? 광합성(光合成)은 나무가 햇빛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로 흡수한 물을 통해 식물이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식물은 영양분을 만들고 그 남은 것은 산소로 우리에게 나눠 줍니다. 또한 균사체(菌絲體, mycelium)란 버섯이나 곰팡이의 뿌리처럼 생긴 실타래입니다. 땅속 깊숙이 퍼져 있어 나무들의 뿌리와 뿌리를 연결해 주는 숲의 비밀 통로입니다. 균사체는 서로 양분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병이 오면 경고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균사체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치유와 돌봄의 연결망입니다. 마치 성령님의 역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살리는 연결망입니다. 어머니 나무는 자신의 영양분을 어린 묘목이나 병든 나무에게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린 생명과 연약한 지체와 병든 지체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 나무는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허브(hub)입니다. 허브(hub)는 무언가가 모이고, 이어지고, 퍼져 나가는 중심 자리입니다. 마치 자전거 바퀴의 가운데 중심과 같습니다. 자전거의 바퀴살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지만, 모두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중심 즉 허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교회의 허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모이고, 모두 연결되

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셋째, 어머니 나무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나무는 자신이 겪은 환경 변화, 병해충 공격,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머니 나무가 가르쳐 주는 지혜를 통해 어린 나무들이 미리 대비하고, 전체 숲이 함께 반응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해 줄 때 다음 세대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넷째, 어머니 나무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어린 나무를 살립니다. 어머니 나무는 죽기 직전에 남은 양분을 기꺼이 모두 내어줍니다. 심지어 뿌리까지도 어린 나무들에게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요 12:24).

숲이 어머니 나무 덕분에 유지되듯, 교회와 가정도 중보 기도과 눈물의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어머니 나무의 숨은 뿌리처럼, 은밀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 주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헌신하신 어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자라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태광 칼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최근에 참석했던 세미나 강사가 나눈 일화다. 그가 젊은 시절 산불을 냈단다. 군대 전역 후 아버지를 도우려고 논두렁을 태우려다 산을 태운 것이다. 봄바람에 실린 불은 걷잡을 수 없었다. 잔디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산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 회관에 달려가 마이크로 산불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단다. 온 마을과 관청의 도움으로 산불은 겨우 꺾단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자신은 감옥 갈 것 같았고, 뒷감당이 겁났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

은 분노하셨을 아버님이였다. 평소에도 무서운 아버지를 사고 치고 만나려니 엄두가 안 났다. 때문에 들어서는데 온몸이 굳어지고 숨이 가빴다. 그때 아버님께서 “수고했다! 들어가 쉬어라!”라고 하셨다. 아버님의 따뜻한 한마디로 젊은이는 용기를 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다.

필자의 아버지도 무서운 분이셨다. 늘 두렵고 찬 바람이 뽕뽕 불었다. 함께 있으면 그냥 불편했다. 애석하게도 아버님 소천 후에 아버지 마음의 온기를 느꼈다. 어린 시절에는 무서웠고, 장성해서는 불편했던 아버지가 요즘은 그림자.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알 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한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다. 주일 아침이면 조바심을 내시며 교회를 향하셨고 아들의 설교를 즐거이 들으시던 아버님 모습이 생생하다. 매주 모든 성도 중에 아버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주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님은 어

김없이 아들 설교에 받은 은혜를 나눠 주셨다.

매주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나눠 주시는 아버님이 민망하고 불편했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전해 주신 이야기는 아버님께서 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매주 은혜를 사모하셨고, 받은 은혜를 나눠 주셨단다.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필코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고, 받은 은혜를 애써 나눠 주신 아버님 마음이 애잔하다. 그날에 무심했던 불효가 새삼 죄송하다.

아들과 딸은 동부에 살고, 우리 부부는 남가주에 산다. 동부에 있는 녀석들이 거의 매일 전화한다. 특히 아들은 매일 출근길에 전화한다. 매일 통화하며 하루 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나도 이런 행복을 아버님께 드린 적이 있을까? 자신이 없다.

요즘 자주 부끄러움을 느낀다. 아버지보다는 훨씬 못한 아버지이고, 아들과 딸보다는 훨씬 못한 자식이다. 이제야 아버님 마음

이 보이고 아들과 딸의 마음이 보인다. 아울러 나의 못남도 보이고 부끄러움도 느낀다. 이제야 철이 드는 듯하다.

6월 15일(6월 셋째 주 주일)은 미국이 지키는 아버지 날이다. 지금 아버지날을 기다린다. 아니 아이들이 준비한 아버지 날의 선물을 기다린다. 오래 관찰하고, 아빠와 인터뷰하고, 최종적으로 엄마와 의논한 아이들이 아빠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1급 비밀을 들었다. 그 비밀을 안 다음부터 소풍날을 기다리던 초등학생처럼 아버지날을 기다린다.

아버지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맘을 배우기를 기도한다. 산불을 낸 아들을 위로하셨던 아버지의 가슴, 설교하는 아들을 격려하셨던 아버지의 가슴을 배우고 싶다. 아울러 허물 많은 나를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 가슴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

아버지 날을 기다리며 “하늘 아버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맘을 품은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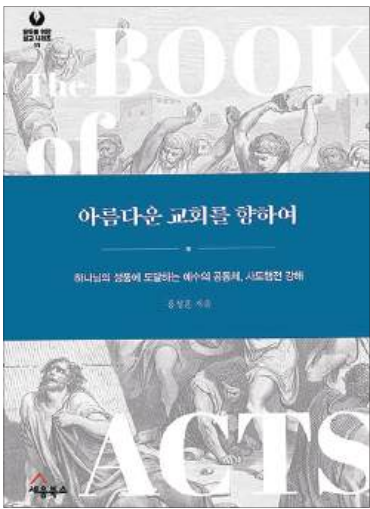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예수의 공동체

사도행전: 하나님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홍성훈 | 세움북스 | 668쪽 | 43,000원

따뜻하면서도 예리하게
교회의 본질을 향한 사려
깊은 통찰로써 복음의 능력,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말하는 사도행전을
설교했다

그래서 본서는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고, 논리성이
탁월하고, 시의적절한
예화가 있어 현장성 돋보인
다. 저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앙적
질문들을 솔직담백하게
드리내어, 독자로 하여금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생각하게 만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면, 교회를 향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교회에 모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영적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인 홍성훈 목사는 사도행전을 교회라는 주제로 살펴본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설교했다.

홍성훈 목사는 독일로 유학 온 유학생들과 함께한 카셀 아름다운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회복을 통해, 유학생들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록으로 실린 부임 설교와 고별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다. 부임 설교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교했다면, 고별 설교에서는 부임 설교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출발과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설교했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라는 설교집을 읽어가면서, 과거 한스 쿡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느꼈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를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홍성훈 목사의 논리적 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설교는 곧 글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성경

에 대한 풍성한 지식, 신학적 사고, 기도를 통한 영성이 설교자에게 중요하지만, 영성과 지식을 글로써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설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글쓰기(수사학)는 사고하고 그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글쓰는 이에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홍 목사의 글쓰기는 매우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이며, 독자에게 글을 통해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설교집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주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성경 속 상황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교회라는 주제를 1장부터 28장까지 끊임없이 질문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설교자가 제시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또 문장 가운데 철학적인 질문을 넣음으로써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며,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은 설교자의 필력에 의한 것으로, 홍성훈 목사의 끊임없는 독서와 기도, 인문학적 지식에서 오는 결과물이다. 둘째, 교회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려는 바를 분명히 언급했다. 그것은 교회의 역동성을 통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와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49편의 설교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구약 성경 속 예언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이것은 개인의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성령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성령

관을 비판한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의 동격인 본질이며, 은사보다 성령의 본질이 중요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회에서 혹은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난다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이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교회 환경은 교회를 내 생각과 구미에 맞춰 찾아가는 음식집에 비유하고 있다. 즉 오늘날 세대는 자기 생각과 관심에 맞는 설교를 선택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희석되고, 청중에 맞는 설교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셋째, 본문과 적용이 분명하다.

성경의 1차 독자는 현대인이 아니다. 길게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성경 1차 독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수천 년 전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긴 시간적 격차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해결한다.

31번째 설교인 ‘관점이 분명한 신자와 교회’에서 홍 목사는 자유와 순종에 관한 문제를 설교했다. 여기서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의 전통적 해석을 바울이 가진 재량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 자유의 제한을 두었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는 한계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한 자유를 언급할 때 던진 질문은, 교회가 얼마만큼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자유의 제한’이었다. 설교자는 청중에서 설교할 때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직접 고민하고 생각하며, 급변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토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상담심리학 프로그램 디렉터 채용공고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과
전문코칭학 석사(Master of Arts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담당할 디렉터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Ph.D. 또는 Psy.D.)
기독교 분야 석사학위 (M.Div., 신학석사 등)
한국어 및 스페인어 강의 가능
관련 분야 교수 또는 디렉터 경력 5년 이상
미국 내 취업 자격 보유
관련 전문면허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파트타임(주 3일), 필요 시 풀타임 협의 가능
급여: 경력 및 역량에 따라 결정
- “제출 서류”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한글, 스페인어)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천서 (목회자 1부, 교수 1부)
신분증 사본
- “접수 마감” 2025년 7월 11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처” Steve Hong (stevehong@ptsu.edu)

CP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3)

나치에 ‘복음적으로’ 저항할 순 없었을까?

본회퍼, 루터 신학적 개념 계승
정치적 입장에선 루터와 결별
루터, 무장투쟁이나 혁명 불참
농민전쟁 과격성에 적극 반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모범으로 삼았던 루터는 폭력이 수반되는 혁명을 수긍했는가?

나치에 저항한 목회자이자 정치적 순교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루터교 목회자였다. 단지 교단만 루터교 소속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 정통한 신학자였다.

신학적 사상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를 막론하고 그의 저서 전반에서 본회퍼는 주기적으로 루터의 글과 설교를 인용하고 루터가 남긴 신학적 개념들을 계승한다.

그러나 만나치 무장투쟁과 히틀러 암살계획에 가담하던 시기의 본회퍼는 정치적 견해 측면에서 루터와는 완전하게 결별한 모습을 보인다. 루터는 살아생전 단 한 차례도 세속 정권에 대한 무장투쟁이나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의가 있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논리로 투쟁했을 뿐, 절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

루터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도 술한 신학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거리로 회자된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루터가 아직 군주나 귀족 중심의 전근대적 정치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교회 내부 사안에만 관심을 가져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대부분 시민혁명의 역사를 배우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이들의 정치관을 반영한 해석이다. 도대체 루터가 반정부 무장투쟁에 대해

어떤 소견을 남겼길래, 그의 정치관이 전근대의 시대적 한계에 묶여 있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룰까?

1524년부터 1526년까지 신성로마제국 여러 지역(오늘날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대규모 농민혁명이 일어났다.

이 농민혁명의 이유는 딱히 하나를 지목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는데, 일단 농노에 가까운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처지에 신음하던 농민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격변을 마주하며 사회체제 변화의 기회를 노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농민들의 암울한 처지에 연민을 갖고 공감하던 개혁 성향 성직자들이 농민들과 힘을 합쳐 당대 독일 영주이자 대지주로서 기독교권을 이루던 공후(Fürst)들의 폭정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독일 농민전쟁의 주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평등과 사회정의의 실현하려는 숭고한 혁명으로 보이겠지만, 당시 루터는 자신 때문에 촉발된 종교개혁이 이렇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는 데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농민전쟁 발발 초기 루터는 약간이나마 농민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봉기 양상이 과격해지자 농민들을 “도둑놈들”이라 부르며 공후들에게 그들의 광기를 엄히 다스릴 것을 권고했다.

본회퍼의 관점, 특히 검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힘쓰던 시기 그의 관점으로 보면 루터의 이런 귀족친화적 입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실제로 본회퍼는 <윤리학>에서 루터 정교분리 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본회퍼 자신의 시대에 맞는 ‘실존적’ 의미로 재해석한다.

본회퍼는 하나님 나라와 세속 정권을 엄밀하게 분리하는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실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만나치 저항단체 ‘검은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생애에 관한 작품이다.

은 교회와 세속의 엄밀한 분리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회퍼는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보였던 실제 행보를 통해 이를 논증한다. 루터는 먼 좌부 판매나 교황무류성이라는 교리적 논제에 관여된 심각한 부조리를 독일의 공후, 부르주아, 그리고 농민들에게 알리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교회와 세속이 합력해 인간의 죄성을 물리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회퍼는 교회와 세속의 논쟁적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역처럼 분리돼 있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교회는 스스로를 세속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히려 세속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퍼진 부조리와 죄악에 저항하는 숭고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루터가 교회와 세속을 분리해서 바라본 원래 의도라고 본회퍼는 해설한다.

이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사안이다. 현실에서 교회와 세속의 불가분적 관계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루터와 본회퍼가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의 대응책을 알려준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루터의 ‘두 왕국 이론’에 대한 본회퍼의 해석은 루터가 독일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 측에 대해 보였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루터의 본심을 적중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회퍼는 시민혁명과 자유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을 이룬 정치적 토양 위에서, 루터의 이론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했다. 교회와 세속이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치적 정의에 대한 견해를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데 대해 본회퍼는 그 순기능을 주목했다.

반면 루터는 교회의 논의를 세속의 영역

까지 확산시키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이는 원래 루터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었으며, 그의 종교개혁 시도가 정치적·사회적 개혁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당시 유럽 기독교 세계가 뿌리 깊은 정교일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세속의 불가분성과 상호관여를 적극 수긍하는 본회퍼의 견해는 정치적·사회적 정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대단히 ‘정치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회퍼의 견해를 루터의 정교분리 사상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기 있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시민혁명과 민주주의를 인류 진보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지고선으로 받들도록 교육하는 사회에서 자라난 이들의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정치적 선과 정의를 위해 교회의 헌신을 촉구하는 본회퍼의 사상이 압도적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루터가 원래 고수하려던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은 이런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다.

영화 〈본회퍼〉는 이런 정치친화적 사회적·문화적 배경 가운데 ‘정치적’ 신앙과 순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자체는 분명 감동적이다.

그런데 정치적 신앙의 모범으로서 휴머니즘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적 신앙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감동을 선사하는 것인지, 적절히 분별할 필요는 있다.

본회퍼의 비극적 죽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그가 ‘실존적으로 해석된’ 루터의 정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해석된’ 루터교 정치관을 이어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나치의 불의에 ‘복음적으로’ 저항한 자로서 교회에 더 온전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영화 〈본회퍼〉는 이러한 의미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작품이다.을 통해 미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했을 알 수 있다.



▲독일 농민전쟁 발발 지역. 오늘날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핀터레스트 캡처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에잇, 모르겠다” 입을 연 순간... 뉴욕 지하철에서 복음이 울려 퍼졌다

SNS 300만뷰 ‘전도 영상’의 주인공, 아비가일 류의 이야기

뉴욕 지하철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복음 전한 청년
SNS 릴스로 퍼진 전도 영상, 300만 뷰 넘기며 화제
인격적인 하나님의 진짜 사랑 깨닫고 ‘일상 전도자’로 변화

SNS 영상 하나로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대학생이 있다. 뉴욕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한 영상 속 그녀, 아비가일 류(Abigail Ryu, 한국 이름 류지현)다. 연극영화와 음식학을 전공하며 신앙과 예술, 일상 속 복음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욕대학교에서 연극영화 전공, 음식학 부전공을 하고 있는 아비가일 류입니다. 한국 이름은 류지현이고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 미국 유학을 1년 반 정도 했다가, 코로나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국제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대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뉴욕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Q. 300만 뷰를 기록한 ‘지하철 전도 영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교에서 셀미팅(셀모임, 소그룹모임)을 마치고 말씀에 감동한 채로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습니 다. 지하철 안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고, 처음엔 너무 망설였어요. ‘예수님, 저 못하겠어요’라고 여러 번 말한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안해도 돼, 하지만 너가 할 수 있음을 내가 알기에, 이 마음을 준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잇 모르겠다’하고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입해요. 그냥 종교가 아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진리를 깨달아갈 때에, 그만큼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Q. 처음 전도하는 자리에서의 떨림도 컸을 것 같습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나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냥 친구를 만날 때도, 수업을 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단순 종교가 아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힘이 있고,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Q.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전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떨렸고, 용감하기보다 ‘작은 순종’의 마음으로 나섰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저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연극영화 전공자로서 작품 활동에 참여 중인 아비가일 류. ©아비가일 류

Q.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가장 먼저 꼽고 싶어요. 지난해 뉴욕대에서 셀 미팅(셀모임,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패션과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했고, 뉴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음식은 부전공으로 삼을 만큼 좋아하고, 요즘 뉴욕의 음식 트렌드나 음식 문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Q.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어땠나요?

한국에서 태어나 16살 중학교 졸업까지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마을 한 자리에서 골짜기 자랐어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분수대에서 핏핑크 기타를 치며 노래했던 기억도 나요. 중학교 때는 부모님이 바빠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외동딸로서 외로움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제 인생의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졸업 후 16살에 1년 반 정도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유학길에 올랐기에, ‘진짜 하나님밖에 기댈 분이 없겠구나’ 싶어서 영영 울며 인천공항을 떠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만의 지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Q.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모태신앙으로 자라, 항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은 물론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아이들 돌보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점점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다른 종교는 무엇



작은 순종으로 입을 연 청년, 뉴욕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 아비가일 류의 영상은 SNS에서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Abigail Ryu 인스타그램

인지, 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도 너무 낮았고, 하나님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계신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성경에 답이 나와있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한번도 직접 제 마음으로 열어본 적 없는 성경을, “그래 한번 다시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9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주님의 동행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024년도 초반에 활영 일을 통해 만난 한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고 그 이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Q.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요?

방금 말씀 드린 미국 친구 아킬(Akil)을 꼭 언급하고 싶어요. 제가 힘들고 답답할 때, 모두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고 말했지만 아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알려준 소중한 형제예요. 영적으로 저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이자 리더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목표는 이 소중한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자라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그분의 뜻대로 사용받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요새 많은 오디션과 사회에 나갑니다. 어디에 서있든 그 사랑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가고 싶어요.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힘과 사랑을 알리는, 반짝 빛나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Q.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왕 중의 왕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축하드려요. 이 시대, 세상의 소리와 질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뵈고 ‘수고했다, 내 딸 내 아들아’라는 말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봐요! 사랑해요 여러분.

Q. 요즘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게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요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한국의 청년 크리스천들이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뉴욕대학교 안에 대학생들을 위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백선영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3년 정도 짧은데 복리로 받는 것도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남편과 함께 아틀란타에서 가족 제품 세공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60세입니다.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9년째 되었는데요, 아직 은퇴할 계획은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차 잘 되서 아마 앞으로 저희 생각에 딱 10년, 7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직이라고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일하는 아이들 2명을 두니까, 저희가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고 입소문으로 비싼 일감이 많아서 정말 편찮은 비즈니스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CD이자자가 좋아서 웰스파고뱅크에 넣었는데 이제 4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났던 IRA도 만기가 됐다고 찾던지, 몰오버를 하던지, 다시 계약을 맺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문선영씨가 도와주시면 CD에 있는 돈을 찾고 IRA도 찾아서 함께 묶어서 이자를 좀 잘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IRA는 너무 이자가 안자라서 겨우 4,000불 정도 밖에 안자라서 이자 좀 좋은 곳에다가 함께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선영씨 도와주실 수 있으시지요?

미국에서여러분의재정상담과플랜을제공하는문선영의머니토크의재정전문가문선영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남동생에 대한 애절한 심정이 느껴지네요. 누나로서 많은 것을 도와

줄 수는 없지만, 남동생이 빚을 다 갚는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싶다는 마음 제대로 접수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10만불 돈을 짧게 복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요 간단하

다. 물론 더 오랜시간의 힘을 빌어서 복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3년 정도 복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3년 동안 그대로 은행보다 더 나은 이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에스터덤은 마이가(MYGA, Multi Year Guaranty Annuity)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가는 어뉴이티 중 하나로 짧은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를 복리로 보장해 주는 플랜이지요.

특히나 삼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고정된 이자를 확고하게 개런티로 받을 수 있으면서 그것도 삼년동안 보장되는 그 이자를 매년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삼 년이 지나고 나서 남동생의 집을 사주는 데 다음 페이로 아주 훌륭하게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 불 현재 가지고 계산 곳을 그저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게 되면 그대로 10만 불의 가치가유지되지만 만약 이것을 마이가(MYGA)에 넣으시게 된다면, 6월 현재 3년 동안 4.9 퍼센트씩을 매년 복리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3년에 4.9%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냐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10만 불을 3년 에 집어넣어서 매년 4.9% 이자를 받게 된다면 첫 해에는 그 \$100,000

불이 \$104,900불로, 4.9%가 붙어서 2년차에는 \$110,040, 그리고 3년째에는 \$110,040에 4.9% 이자를 붙여서 \$115,432.06으로 자라게 됩니다.

3년 동안 4.9% 복리로 받은 돈이 \$15,432.66 인데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년동안 그냥 처음부터 15,432 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428.66센트를 3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모았을 때만 들어지는 돈입니다. 한달에 \$428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엑스트라로 저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100,000을 이 MYGA 삼 년짜리 4.9% 매년 보장되는 플랜을 하셨을 때 지금 우리 에스터덤의 경우 남동생에게 빚을 다 갚고 나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다음 페이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겠지요.

복리가 시간의 힘을 빌어서 오랜 시간동안에 쌓인 곳에 더 이자를 받는 그야말로 눈이 굴러가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랫동안 묶을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일년이건 삼 년이건 오 년이건 그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에스터 님과 어머니와 그리고 남동생이 3개월, 6개월 사이에 이 돈이 필요하다면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출장 사무소가 테메클라 벨리를 찾아 갑니다

재정세미나

SATURDAY, 6/14/2025

10:30am 내가 찾아 쓰는 리빙베네티

12:00pm 은퇴플랜 어뉴이티, 401k, IRA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의 스테이트먼트 리뷰나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갈보리 사랑교회

25771 Jefferson Ave, Murrieta, CA 92562

문의 :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하지만 복리이자를 받아야겠다 싶으시면 이자를 몇 번 받을 수 있는 3년, 5년 이러한 상품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우리 에스터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년마이가 상품을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오 년을 묶으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25년 6월 마이가(MYGA) 좋은 이자율은 매년 5.2% 복리로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에스터님께 도움이 되셨

기를 바라고 마이 가에 대한 문의와 플랜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0만불에 3년 4.9% 보장 복리

1년	\$104,900
2년	\$110,040.10
3년	\$115,432.06
이자 받은 돈	\$15,432.06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朝 鮮 日 報

창간 105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TOP7

완전체 LA 총출동!

추혁진

손빈아

남승민

최재명

김용빈

천록담

추혁진

TOP7

미스터트롯3

2025년 8월 24일 (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The Ebells of Los Angeles

월서이벨극장

743 S. Lucerne Blvd., LA, CA 90005

2회 공연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추혁진

남승민

최재명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탈렌트쇼&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래스카 크루즈 등)

▶요금: 오션뷰 \$1,799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발코니 \$1,999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

여행의 명문 -

엘리트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